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명진스님(안현정)*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논의

■ 한글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육바라밀(六波羅蜜)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G시의 유아교육기관 2곳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40명(실험집단 20명, 통제집단 2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에는 육바라밀의 여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불전설화를 활용한 철학적 탐구활동을 18회기 처치하였다. 통제집단에는 동일한 기간에 누리과정에 근거한 놀이중심의 교육활동이 주간교육계획에 따라 실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win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하였다. 분석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 유아의 ‘공감능력’ 전체와 하위요인의 ‘소통적 공감’과 ‘인지적

* 동국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겸임교수

공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의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불전설화를 활용한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방법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 육바라밀, 철학적 탐구활동, 공감능력, 소통적 공감, 인지적 공감

I. 서론

육바라밀(六波羅蜜)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으로, '너'와 '나'가 함께 성숙하여 다 같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육바라밀의 덕목을 살펴보면,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지혜)이며, 이는 일체의 선을 행하는 것으로 희생이나 봉사를 의미하는 보시바라밀(布施波羅密), 스스로 계율을 지키며 선한 행동을 하는 지계바라밀(持戒波羅密),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참고 견디며 욕심을 절제하는 인욕바라밀(忍辱波羅密), 어떤 일을 완성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진바라밀(精進波羅密),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사려 깊게 생각하는 선정바라밀(禪定波羅密), 그리고 육바라밀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으로 앞서 다섯 가지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필수조건인 반야바라밀(般若波羅密)의 내용으로 구성된다(권은주, 2015).

아동철학은 70년대 말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기초한 유아교육 이론이 소개되고, 1980년대와 90년대에 미국에서 사고교육이 교육계에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

교육에 대하여, Kant는 지식의 체계로서의 ‘철학’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철학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며, 이는 “지식으로서의 철학과 태도로서의 철학함”(Martens, 1999)이라고 주장한다. Wittgenstein(1921)도 “철학은 학설의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활동”이며, ‘철학하는 것’, 또는 ‘철학함’으로서의 철학의 성격은 주어진 탐구 대상이나 주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사고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진지하게 사고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깊이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 방법’에 따라 의문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자신의 사고를 명료화할 수 있을 때까지 사고하는 것(박철홍 외, 2002)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는 철학적 존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유아의 경우 끊임없이 자신이 속해 있는 주변 상황에 대해 호기심과 궁금증을 더해가며 탐구하기를 즐기고, 유아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어린이철학교육(Philosophy for Children: P4C)에 대한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실시한 Lipman(2005) 역시 철학교육은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유아가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사고활동을 통해 철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rtens(1999)에 의하면 유아는 어떠한 하나의 앎에 만족하지 않으며 또한 알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 체념적이거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선희(2004)도 사고 훈련의 시기에 대하여 형식적 조작 논리가 갖춰진 시기가 아닌 오히려 더 어린 연령의 아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주(2012)의 보고에 따르면 의미를 추구하는 ‘어린이와 함께 하는 철학’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이는 유아로 하여금 스스로 사고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자신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유지 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유아를 위한 철학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관련하여 DeBono(1985)는 수직적 사고뿐만 아니라 수평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사고기법을 소개하였다. 이는 여섯

가지의 색깔모자가 의미하는 특정의 사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폭넓은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기법은 유아의 사고 양상을 분류하여 의도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만을 사고하게 하는 것으로 유아들은 육색모자를 활용한 사고기법에 참여하여 여섯 가지의 토의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김효순(2005)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들은 육색모자 사고기법을 통해 감성적, 이성적, 도덕적 차원에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길러졌다고 한다. 이는 육색모자 사고기법이 특정한 사고와 사고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일상적인 사고의 틀과는 다른 각도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틀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유아들도 다양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되면 감성이 시키는 대로 자신에게 좋고, 싫은 것을 취하지 않고, 이성적 차원에서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취하여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육색모자 사고기법은 유아로 하여금 여섯 가지의 다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게 할 뿐 아니라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아의 철학적 탐구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들은 또래와 의사소통을 할 때 친밀함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서로의 목표나 기대가 다른 경우에는 대립과 갈등을 경험한다. 또한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유아들은 또래와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유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의 깊은 경청을 하고, 또래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해하여 수용하면서 공감하게 된다. Girolametto, Weitzman 그리고 Greenberg(2004)에 의하면 공감과 소통을 잘하는 유아가 또래에게 수용되는 정도가 높고, 더 나아가 또래와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 Hazen과 Black(1989)도 공감과 소통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수단이 될 뿐 아니라 또래 관계의 질적 수준과 관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보고한다. 따라서 ‘공감’은 인간관계에서 소통의 핵심이자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임(정상섭, 2006)

을 알 수 있다. 공감에 대하여 임영숙(2021)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감정까지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며,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소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아의 이러한 공감능력은 여섯 가지의 다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게 하는 육색모자 사고기법과 본 연구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육바라밀 기반의 철학놀이 등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본 연구의 육바라밀(六波羅蜜)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은 유아의 공감능력 증진뿐 아니라 유아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적절한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불교적으로도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안현정(2016)은 육바라밀 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을 통해 유아의 자기인식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통해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 스스로 사고하는 상위능력인 메타인지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자기인식 뿐 아니라 창의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확산적 사고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에서(박명숙, 유연옥, 2007; 임윤정, 2007; 조선희, 2011) 유아를 대상으로 철학활동을 고찰하고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바라밀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기반으로 한 철학활동과 육색모자 사고기법을 통합한 철학적 탐구활동을 통해 유아 스스로 사고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함은 물론 유아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유지하도록 하여 공감능력 증진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의 구성은 어떠한가?

둘째,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은 유아 공감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육바라밀과 철학활동

가. 육바라밀(six-pāramitā, 六波羅密)

대승불교의 전통 위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즉 보살(菩薩, Bodhisattva)의 구체적인 실천수행의 여섯 가지 덕목을 육바라밀다(六波羅密多, Sat-pāramitā)라 한다. 그리고 육바라밀은 보살(菩薩)이 열반(涅槃)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여섯 가지의 수행으로서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를 말한다.

회주 법정스님(1994)은 바라밀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는 일’, 즉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말하며 인간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섯 가지 덕목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육바라밀은 보살(菩薩)의 구체적인 실천덕목으로 보시, 지계, 인욕은 중생구제를 위한 이타행(利他行)이며, 정진, 선정, 지혜는 자기완성을 향한 자리행(自利行)이다. 여섯 가지 바라밀의 덕목을 살펴보면, 일체의 선을 행하는 것으로 희생이나 봉사를 의미하는 보시바라밀(布施波羅密), 스스로 계율을 지키며 선한 행동을 하는 지계바라밀(持戒波羅密),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참고 견디며 욕심을 절제하는 인욕바라밀(忍辱波羅密), 어떤 일을 완성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의미의 정진바라밀(精進波羅密),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사려 깊게 생각하는 선정바라밀(禪定波羅密), 그리고 육바라밀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으로 앞서 다섯 가지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필수조건인 반야바라밀(般若波羅密)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불교의 교육내용은 궁극적으로는 불교가 추구하는 인격적 완성을 목적으로 엮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삼학(三學)이 아동의 조

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한 이론을 제시한 것이라면, 팔정도(八正道)는 개인의 수행방법이고, 육바라밀(六波羅密)은 개인의 사회화에 필요한 실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임영숙(2021)은 공감능력을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감정까지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며,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소통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일체의 선을 행하고 희생이나 봉사를 의미하는 ‘보시바라밀’과 스스로 계율을 지키며 선한 행동을 하는 ‘지계바라밀’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행하는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또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과 연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참고 견디며 욕심을 절제하는 ‘인욕바라밀’은 또래가 처한 상황이나 입장을 걱정하고 속상해하며, 즐거운 기분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공감’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떤 일을 완성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의미의 ‘정진바라밀’과 다섯 가지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필수조건인 ‘반야바라밀’은 또래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인식하고 수용하여 행할 수 있는 ‘인지적 공감’이 선행되어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사려 깊게 생각하는 ‘선정바라밀’은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서 또래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통적 공감’과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안현정(2016)은 이들 모두는 나 이외의 모든 인간을 깊이 인식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정신과 공동체적 의식 및 인품을 기르고 가꾸어 가는 데 있어 탁월한 교육내용이라고 하였다.

나. 유아와 철학활동

철학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Philosophia’(Φιλοσοφί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동사 ‘Philein’(to love, having concern for, 사랑하다)과 명사 ‘sophia’(wisdom, knowledge, 지혜, 지식)의 합성어로, ‘Philosophia’란 ‘지혜와 지식을 사랑함’이며, 철학에서는 그 어원상 ‘애지’(愛智)라는 뜻으로 지혜 또는 지식을 사랑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으로 보았다.

Kant는 지식의 체계로서의 ‘철학’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철학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고, Wittgenstein(1921)도 “철학은 학설의 체계가 아닌 하나의 활동”으로 보았다. Lipman(2005)은 이러한 철학 활동은 어릴 때 시작할수록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유아들이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사고 활동과 함께 철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rtens(1999)도 유아들은 어떤 하나의 얇에 만족하지 않으며 또한 알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 체념적이거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는 끊임 없이 ‘왜?’라고 발문하며, 그 순간부터 철학적 사고의 문이 열린다고 하였다. 고현숙(2007)에 의하면 유아는 ‘왜?’라는 물음 속에서 인과적 설명을 끌어내고, 어떤 사물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어떤 행동이 무엇을 위해 행해진 것인지를 묻는 가운데 이미 사물과 타자에 관계를 맺으면서 철학하는 방법을 배워간다고 하였다. Mattews(1980)도 유아가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놀이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며, 사고 속에 내포된 철학성을 기초로 유아를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희(2004)는 사고 훈련의 시기는 형식적 조작 논리가 갖춰진 시기가 아닌 오히려 더 어린 연령의 아동기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철학 활동은 유아로 하여금 ‘철학함’을 통해 무비판적인 사고, 어리석은 판단, 편견과 관념에 대한 무관심에 맞서, 스스로 사고하거나 친구와 함께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Fisher, 2008)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철학 활동에서는 유아의 생각하는 과정과 생각하는 능력에 관심을 가진다(홍승분,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학이라는 개념을 유아 교육, 특히 불교유아교육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를 하였다. 실제로 여러 선

행연구(박명숙, 유연옥, 2007; 임윤정, 2007; 2009; 조선희, 2001; 홍승분, 2007)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철학 활동을 고찰하고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2. 육색모자 사고기법

‘육색모자 사고기법(Six Color Thinking Hats)’은 DeBono(1985)가 제안한 활동으로, 창의적 사고를 기르고, 단순성과 사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힘 때문에 아동의 사고 훈련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육색모자 사고기법은 사고 양상을 분류하여 의도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만을 사고하게 한다. 즉 이러한 활동은 여섯 가지 색깔의 모자를 쓰고 하는 역할 놀이로 진행되기도 하고, 토의·토론, 협동 기술 훈련, 프로젝트 등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육색모자 사고기법에서 사고 행동의 기본 양식은 각기 다른 색의 모자로 주어지며, 한 가지 유형의 사고만 하도록 하는 것이다. 활동의 흐름은 먼저, 주제 정하기, 다음으로 역할 분배(각기 다른 여섯 가지 색깔의 모자를 쓴다.), 토의 및 토론(각자 다른 색깔의 모자에 해당하는 사고를 하여 발언한다), 기술 습득(사고의 훈련과 토의 기술이 습득되면 육색모자 없이 토의를 진행한다)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육색모자 사고기법은 특정한 사고와 사고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일상적인 사고의 틀과는 다른 각도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틀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되면 감성이 시키는 대로 자신에게 좋고, 싫은 것만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성적인 차원에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2011)와 교육부(2017)에서는 육색모자 사고기법과 같은 이러한 토의 활동을 통해 다각도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눈을 갖는다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토론·토의 및 회의에서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역할놀이로 완화시키는 ‘중재자’의 역할도 할 수 있어서 토론을 생

산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김효순(2005)은 아동들이 육색모자 사고기법을 통해 감성적, 이성적, 도덕적 차원에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증진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아동들이 하얀 모자와 빨간 모자 사고활동을 통해 감성적 차원의 ‘좋다-싫다’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를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노란 모자와 검은 모자 사고활동을 통해서서는 이성적 차원의 ‘맞다-틀리다’와 관련된 사고를 하게 되었으며, 초록 모자와 파란 모자 사고활동을 통해서서는 도덕적 차원의 ‘옳다-그르다’와 관련한 생각을 하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육바라밀 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을 계획하고, 육색모자 사고기법을 활용하여 여섯 가지의 다각적인 관점에서 공감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는 토의활동을 구안하여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3.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

구민호(2009)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하여 육바라밀을 주제로 불교 철학적 관점에서의 답을 제시하고, 교육철학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육바라밀이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인간이 알아야 할 불교의 수행 방법일 뿐 아니라 불타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육바라밀 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은 육바라밀의 여섯 가지 덕목을 통하여 유아들의 사고를 독려하는 활동으로 교육적인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발달의 기본 틀이 갖추어지는 유아기 교육으로 바람직한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철학적 탐구활동은 조선희(2004)의 철학놀이와 활동 원리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철학놀이는 상상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놀이를 활용하여 유아철학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사고 발달의 특성상 유아의

철학적 탐구는 상상적 사고에 의존하고 또 상상적 사고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철학놀이에서는 구체적인 사고기술에 초점을 두는 놀이를 통하여 비판적, 창의적, 배려적, 상상적 사고능력을 함양한다. 여기에서 구체적 사고기술이란 궁금증과 의문을 가지기, 궁금증과 의문을 질문으로 표현하기, 자기의 생각에 대한 이유 말하기, 사물들을 서로 비교하기, 사물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개념을 파악하기,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개념을 확대하기, 추론하기, 다른 대상의 입장 되어 보기, 새로운 관점을 가지기, 자신의 사고에 대해 생각하기, 상상하기 등이다. 셋째, 철학놀이는 철학함의 방법을 유아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단순히 암송을 통한 지식습득이 아닌 다양한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유아 스스로 철학적 질문 혹은 개념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과 능력을 강조한다. 넷째, 철학놀이는 탐구공동체 방법을 강조한다. 소집단활동이나 대집단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율적 사고능력을 함양한다. 다섯째, 철학놀이는 철학적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아의 능동적인 활동을 강조한다. 교사의 지시적인 활동이 아닌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즐겁게 참여해야 한다. 여섯째, 철학놀이는 유아로 하여금 다양한 관점에서 철학적 질문에 접근하도록 한다. 유아가 자신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철학놀이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통합적으로 접근한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생활주제와 관련하여 철학놀이를 위한 철학적 질문이나 개념을 추출하여 철학적 탐구를 해보도록 한다. 여덟째, 철학놀이는 교사와 유아의 상호성장을 강조한다. 교사가 근원적인 질문들을 탐색함에 있어 유아들과 같음을 인정하고 철학적 탐구과정에 함께 참여해서 교사와 유아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DeBono(1985)가 제안한 육색모자 사고기법

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수직적 사고뿐만 아니라 수평적 사고까지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유아로 하여금 여섯 가지의 색깔모자가 의미하는 특정의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여 폭넓은 창의적 사고를 하게 하고, 여섯 가지의 사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철학적 탐구활동은 육바라밀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기반으로 조선희(2004)가 제안한 유아 철학놀이 활동과 DeBOno(1985)가 제안한 창의적 사고 활동인 육색모자 사고기법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아 스스로 사고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함은 물론 유아의 공감능력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육바라밀 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을 계획하고 구성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시에 소재하고 있는 Y 불교유치원 만 5세 유아 20명을 실험집단으로 하였다. 통제집단은 동일지역 인근에 위치한 Z 불교유치원 만 5세 20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집 단	남	여	계
실험집단	9	11	20
통제집단	10	10	20
전체	19	21	40

실험집단은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훈련받은 연구보조자(유아교육 전공 석사졸업, 유아교육현장 경력 9년 이상)가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 활동을 처치하였다. 통제집단은 만 5세를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하여 구성된 대·소집단활동을 처치하였다.

2. 연구도구

가. 유아 공감능력 척도

유아 공감능력 척도는 임영숙(2021)이 개발한 것으로 총 18개 문항이며, 하위요인은 소통적 공감, 사회적 공감,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으로 구성되었다. 임영숙(2021)은 공감능력을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감정까지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며,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소통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하위요인별 척도에 대한 정의는 <표 2>와 같다. 또한 임영숙(2021)의 연구에서 제시한 문항에 대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96이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소통적 공감’은 .848, ‘사회적 공감’은 .843, ‘정서적 공감’은 .856, ‘인지적 공감’은 .777로 매우 양호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유아 공감능력 척도에 대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 또한 .828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2> 유아용 공감능력 척도의 구성과 정의

하위요인	정의
소통적 공감	또래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으로 표현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
사회적 공감	또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친사회적 행동이나 반응 외에 유아가 취하는 공격적 행동에 관한 것

정서적 공감	또래의 즐거운 기분을 이해하고, 또래가 처한 상황이나 입장을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것
인지적 공감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

<표 3> 유아용 공감능력 검사 문항의 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소통적 공감	5	1, 2, 3, 4, 5	.707
사회적 공감	5	6*, 7*, 8*, 9*, 10*	.788
정서적 공감	5	11, 12, 13, 14, 15	.738
인지적 공감	3	16, 17, 18	.621
전체	18	1-18	.828

*표는 역채점 문항임

나.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을 위한 동화 선정

본 연구에서는 육바라밀의 불교적 개념과 철학적 의미를 교육내용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교육매개체로 불교동화 6편을 선정하였다. 동화 선정 시 고려한 사항은 유아의 일상 경험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의 자율적 사고능력을 신장시키며, 철학적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특히 육바라밀의 여섯 가지 덕목을 주제로 불전설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유아를 대상으로 철학적 탐구활동에 적합한 불전설화를 선정하였다. 불전설화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은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유아교육 전문가 총 10인(유아교육 전공한 교수 2인, 유치원 원장 3인, 유치원 현장경력 9년 이상의 현직교사 5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육바라밀에 대한 6개의 하위덕목 실천을 위해 최종 선정된 6편의 불전설화와 불교동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최종 선정된 불전설화 목록과 선정된 불교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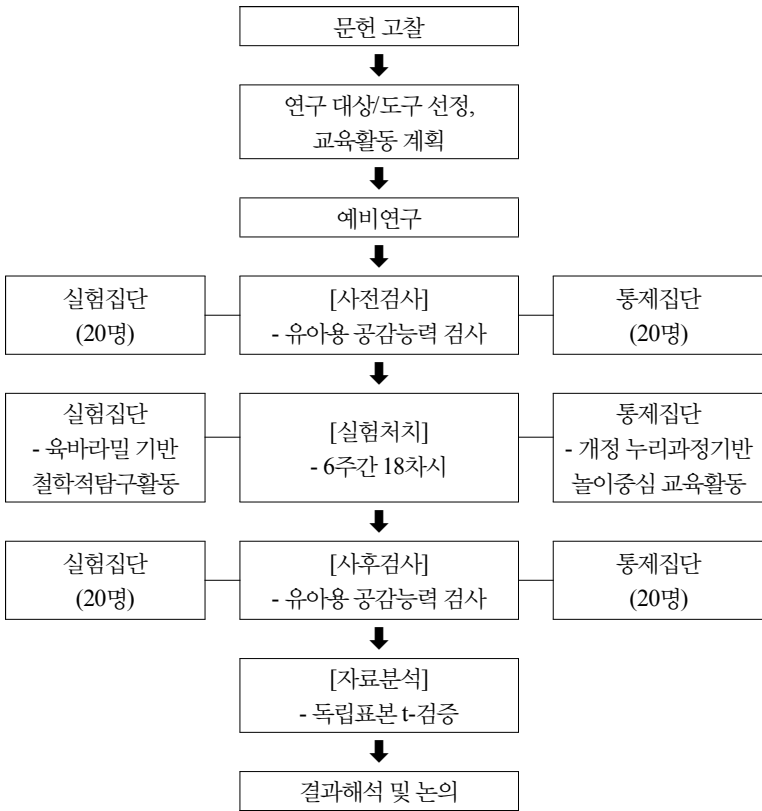
권수	경번호	불전설화 목록	불교동화 제목	육바라밀 덕목
1	288	고기떼의 전생	두 형제 이야기	보시
2	38	청로의 전생	욕심 많은 해오라기 ¹⁾	지계
3	407	큰 원숭이의 전생	큰 원숭이 왕 이야기 ²⁾	인욕
4	387	바늘의 전생	대장장이와 바늘	정진
5	449	빛나는 귀고리의 전생	깨달음을 얻은 아버지 ³⁾	선정
6	20	노움촌의 전생	지혜로운 원숭이 왕과 호수귀신 ⁴⁾	지혜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선행연구 및 문헌을 참고로 연구를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을 위해 전문가 10인에 의한 2차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쳐 총 6편의 불교동화를 선정하였다. 실험처치는 조선희(2004)의 철학놀이와 DeBono(1985)의 육색 모자 사고기법을 활용한 토의활동을 토대로 총 6주 동안 18회기의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본 연구의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에 대한 효과 검증은 유아의 공감능력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해 집단간 평균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1) 권대원, 김세인(2014). 욕심 많은 해오라기. 양서원.
 2)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4373>
 3) 권대원, 김세인(2014). 깨달음을 얻은 아버지. 양서원.
 4) 권대원, 김세인(2014). 지혜로운 원숭이 왕과 호수귀신. 양서원.



[그림 1] 연구의 진행절차

가. 예비연구

본 연구의 실험처치에 앞서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수준에 적합한지, 예상시간 및 활동방법 등에 대한 고려사항을 파악하고자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G시의 H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 24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가 실행되기 일주일 전인 2021년 8월 9일~8월 10일까지 2일간 유치원 일과 중 대집단 활동이 전개되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1차시(첫째 날)는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

동 중의 하나인 궁금놀이를 실시하였고, 2차시(둘째 날)는 토론놀이를 실시하였다. 3차시(셋째 날)는 육색모자 사고기법을 활용한 토의활동을 진행하였다. 각 활동에 소요된 시간은 궁금놀이와 토론놀이, 육색모자 사고기법을 활용한 토의활동 모두 약 25분~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예비연구를 통해 H 유치원의 경우 일반 사립유치원으로 불교동화를 활용하는 것과 육바라밀 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에 무리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하였다. 그 결과 연구를 위해 선정된 동화의 내용은 불전 설화를 불교동화로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유아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유아들은 동화를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다른 친구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등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의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에 대한 연구의 적합성뿐 아니라 교육활동 진행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사전검사

본 연구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 20명과 통제집단 2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이 적용되기 1주일 전인 2021년 8월 23일~2021년 8월 25일(3일간)까지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감능력 검사는 연구자와 훈련받은 유아교사 1인(교육경력 9년 이상)에 의해 실시되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감능력 검사는 임영숙(2021)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유아에 의한 자기보고식 평정 방식이다. 예를 들면, 검사자가 유아에게 해당 문항을 질문하면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한다. 만약 ‘아니요’ 또는 ‘몰라요’라고 답하면 1점으로 체크하고, ‘예’라고 대답하면 유아에게 반

응지(크기가 다른 동그라미가 4개 그려져 있음)를 보여주며 어느 정도인지를 동그라미 4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동그라미 4개에 해당하는 점수는 각각 2점에서 5점까지이다. 검사 장소는 검사하는 동안 유아가 방해받지 않도록 일대일로 원장실 또는 조용한 교실에서 실시되었으며, 소요시간은 유아당 약 20분 정도이다.

다. 검사자 훈련 및 교사교육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을 위한 검사자 훈련 및 교사교육은 2021년 8월 17일~8월 19일까지(3일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실험집단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 육바라밀의 개념 및 이해, 철학적 탐구활동의 개념과 활동방법, 활동 내용, 교사의 역할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육바라밀 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살피고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였다.

라. 실험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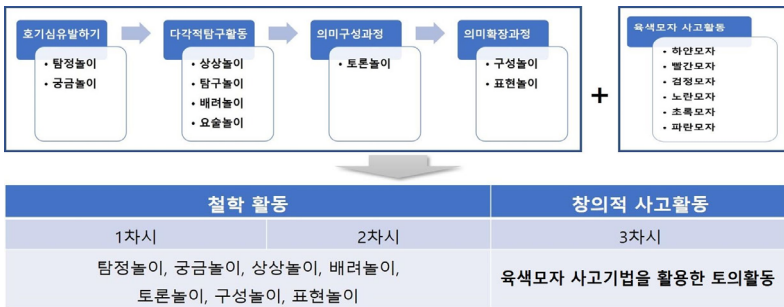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을 위한 교육활동의 구성은 권대원(2008)의 불교 유치원 교사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과정과 조선희(2004)의 유아 철학놀이, DeBono(1985)의 육색모자 사고기법의 활용을 기초로 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유아교육 전문가 교수 2인, 유아교육 전공의 교육학 박사 2인, 유치원 원감 1인과 연구자가 함께 구성하고 합의하였다.

1)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의 전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조선희(2004)가 제안한 9개의 철학놀이(탐정놀이, 궁금놀이, 상상놀이, 탐구놀이, 배려놀이, 요술놀이, 토론놀이, 구성놀

이, 표현놀이)와 호기심 유발과정, 다각적 탐구과정, 의미 구성과정, 의미 확장과정을 기초로 하였다. 또한 확장활동으로는 불전설화의 내용을 토대로 DeBono(1985)가 개발한 육색모자 사고기법을 활용한 토의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같이 본 연구에서는 9개의 철학놀이 방법 중 탐구놀이와 요술놀이를 제외한 7가지 놀이방법을 1차시와 2차시의 철학적 탐구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3차시는 동화의 내용을 토대로 폭넓은 창의적 사고를 통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육색모자 사고기법을 전개하였다 [그림 2. 참조].



[그림2]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 전개 과정

2)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 방법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에서 ‘궁금놀이’는 [의문 가지기], [의문 표현하기], [자기 의견에 대한 이유 말하기]의 활동을 하면서 동화 속에서 놀라움이나 궁금증을 가져 보도록 하였다. 탐정놀이는 추론능력을 기르는 데 있으며, 상상놀이는 자신의 입장에서 상상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배려놀이를 통해서 배려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고, 토론놀이에서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탐구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구성놀이에서는 구성물을 만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표현놀이에서는 동극이나

조각활동으로 표상해 보도록 하였다. 또한 육색모자 사고기법을 활용한 토의활동에서는 6가지 색깔의 모자가 의미하는 특성의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수직적 사고뿐 아니라 수평적 사고를 활용한 폭넓은 사고를 하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전개하였다. 각 활동 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철학적 탐구활동 전개에 따른 활동 단계와 내용

활동유형	활동 단계와 내용	
	1차시 & 2차시	3차시
궁금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문 가지기 ② 의문 표현하기 ③ 자기 의견에 대한 이유 말하기 	육색모자 토의활동 ① 하얀모자(사실모자): 사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② 빨간모자(감정/느낌 모자): 감정 느낌에 대해 공감하기 ③ 검정모자(부정모자): 부정적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기 ④ 노란모자(긍정모자):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기 ⑤ 초록모자(창의/대안 모자): 창의적인 대안 찾아보기 ⑥ 파란모자(정리모자):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정리하기
탐정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장 제시하기 ② 생각 표현하기 ③ 자기 의견에 대한 이유 말하기 	
상상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상하기 ② 생각 표현하기 ③ 자기 의견에 대한 이유 말하기 	
배려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제 찾기 ② 극으로 표현하기 ③ 해결방안 정하기 	
토론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토론 질문 살펴보기 ② 철학적 토론하기 ③ 토론 평가하기 	
구성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제 찾기 ② 구성하기 ③ 구성 평가하기 	
표현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획하기 ② 표상하기 ③ 표현 평가하기 	

3) 통제집단의 누리과정기반 놀이중심 교육활동

통제집단의 교육활동은 6주 동안 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한 놀이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놀이 전개 및 환경적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 6>과 같다. 담임교사는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유아와 놀이 전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소통 및 일반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을 수행하였다.

<표 6> 개정 누리과정기반 놀이중심 교육활동 내용

기간	주제	놀이 전개	환경적 지원
1주	교통 기관의 종류	내가 이용한 교통기관 알아보기 ↓ 교통기관 특성 탐색하기 ↓ 교통기관의 역할 이해하기	· 미술: 복직복직 자동차를 그려요, 자동차가 있는 풍경 · 수조작: 모양 조각으로 교통기관 구성하기 · 언어: 교통기관 글자 자식 · 음률: 자전거 클랙슨으로 연주하기 · 신체: 비행기야 날아라
2주	고마운 교통 기관	대중교통 수단 종류와 특징 알아보기 ↓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 예절 알고 지키기 ↓ 특별한(일하는) 교통기관의 소중함, 감사하는 마음 갖기	· 수조작: 표가 필요해요, 여행자에게 편리해요, 고마운 자동차를 찾아 주세요. · 쌓기: 공행놀이 · 언어: 도와주세요, 같은 점 다른 점 찾기 · 신체: 어떻게 할까요
3주	전통 의복	전통 의복과 생활 문화 알기 ↓ 예절 바르게 행동하기	· 역할: 한복을 바르게 입어요 · 미술: 족두리와 사모 만들기 · 과학: 고운 빛깔 우리 옷
4주	전통 음식	전통음식 알아보기 ↓ 전통음식 경험하기 ↓ 전통음식 즐기기	· 수조작: 밥상차리기 · 요리: 백설기, 쌀강정 만들기 · 음악: 전래동요/김치 김서방 · 과학: 생채소와 장아찌 관찰하기 · 역할: 차 마시는 예절(다도)
5주	전통 가옥과 생활 도구	전통 가옥, 생활 도구 알아보기 ↓ 전통 가옥, 생활 도구 경험하기 ↓ 전통 가옥, 생활 도구의	· 미술: 어처구니 만들기, 한지 그릇 만들기 · 언어: 우리나라 집 사진 만들기 · 역할: 신기한 옛날 물건, 아씨와 반진고리

		우수성 느끼기	
6주	전통 놀이	전통놀이 알아보기 ↓ 전통놀이 경험하기 ↓ 전통놀이의 가치 이해하기	· 신체: 던지고 받고 공기놀이, 빙글빙글 말 팽이, 대문놀이 · 미술: 날아라 방패연 · 수조작: 도개걸옷모 옷놀이 · 바깥: 꼬고 묶는 나무/풀 놀이

4) 진행과정

본 실험은 2021년 8월 30일~2021년 10월 8일까지 약 6주간에 걸쳐 주 3회씩(총 18회기) 진행하였다. 실험집단의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은 매 차시당 약 30~40분이 소요되었으며, 활동방법에 따라 대·소집단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에서는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한 만5세 교육활동이 놀이 중심으로 30~40분 이상 실행되었다. 실험 진행 절차 및 일정은 <표 7>과 같다.

<표 7> 실험 진행 절차 및 일정

일정	실험집단	통제집단	기간
사전검사	- 유아공감능력 검사	- 유아공감능력 검사	2021.08.23.~08.25.
실험처치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	개정누리과정기반 놀이중심 교육활동	2021.08.30.~10.08.
사후검사	- 유아공감능력 검사	- 유아공감능력 검사	2021.10.12.~10.14.

마.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본 연구의 실험처치가 끝난 후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3일간)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아용 공감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각 검사의 채점 기준에 근거하여 점수화하였으며, 통계적 분석은 SPSS WIN 28.0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였다. 또한 실험처치에 대한 효과 검증은 두 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를 통해 평균을 비교하는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육바라밀기반 유아철학적 탐구활동의 구성

본 연구의 철학적 탐구활동은 육바라밀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기반으로 활동주제를 선정하고 철학적 탐구활동 전개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다.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의 구성은 <표 8>과 같다.

<표 8>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의 구성 내용

No.	불교동화 제목 (육바라밀 덕목)	1차시	2차시	3차시
		철학활동(1)	철학활동(2)	육색모자 토의활동
1	두 형제 이야기 (보시)	(궁금놀이) - 동화 듣기 - 질문 만들기	(토론놀이) - 나눔이란 무엇일까?	- 아버지의 유산 어떻게 할까요?
2	욕심 많은 해오 라기 (지계)	(탐정놀이) - 질문에 O, X로 답하기	(토론놀이) - 약속이란 무엇일까?	- 해오라기는 왜 거짓말을 했나요?
3	큰 원숭이 왕 이 야기 (인욕)	(배려놀이) - 만약 내가 원숭이라면~	(토론놀이) - 인내란 무엇일까?	- 임금님은 원숭이를 왜 죽이려고 했나요?
4	대장장이와 바늘	(상상놀이)	(토론놀이)	- 대장장이는

	(정진)	- 만약 내가 청년이라면?	- 노력이란 무엇일까요?	결혼하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5	깨달음을 얻은 아버지 (선정)	(토론놀이) - 사유란 무엇일까요?	(구성놀이) - 바른 사유 표현하기 - 동화다시 만들기	- 아버지는 왜 아들의 무덤 앞에서 날마다 울었나요?
6	지혜로운 원숭이 왕과 호수귀신 (지혜)	(토론놀이) - 지혜란 무엇일까요?	(표현놀이) - 동극으로 표현하기	- 배가 고프 호수귀신은 어떻게 하였나요?

<표 8>의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은 유아의 수준을 고려하여 유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음은 육바라밀의 ‘보시’와 관계된 ‘두 형제 이야기’에서 ‘나눔이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1, 2, 3차시의 철학적 탐구활동에서 다루어진 교육활동 사례이다.

▣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 사례(예시)

【1차시】

● 궁금놀이: 나눔이란 무엇일까?

- 주제: 나눔이란 무엇일까?
- 일시: 2021년 8월 30일(월)
- 불전설화 선정동화: 두 형제 이야기(고기떼의 전생)
- 활동시간: 20분~30분
- 활동유형: 대, 소그룹
- 철학적 탐구활동 목표: 나눔의 의미를 이해하기
- 철학적 탐구활동 방법: 궁금놀이
- 활동목표

- 동화 내용에서 궁금증과 의문을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궁금증에 대한 생각과 이유를 말할 수 있다.

· 활동자료

- 동화자료, 질문 활동지, 연필, 지우개, 색연필, 크레파스, 칠판

· 활동시 유의점

- 유아의 궁금한 질문에 대하여 교사가 판단하여 질문에 옳고 그름에 치중하지 않는다.

- 유아가 질문지를 어려워하는 경우, ‘다음에 다시 해보자’ 하며 격려한다.

- 유아가 궁금한 것이 없다고 말할 경우 동화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질문을 함께 만들어 본다.

● 활동과정 및 내용

(1) 도입: 불교동화 듣기

· 손유희를 하며 동기유발을 진행한다.

- ‘재밌는 동화가 왔어요.’ 잘 들어보자.

- 동화야 열려라 짹짹 손유희를 한다.

- ‘오늘은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먼 옛날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줄게요. 그런데 제목이 빠져있네요? 부처님께서 들려주는 이야기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며 궁금증을 유발한다.

· ‘두 형제 이야기’를 다양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준다.

(2) 철학적 탐구활동 전개

① 의문가지기

· 동화를 듣고 동화와 관련된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을 생각해보게 한다.

·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만들고, 이유도 생각해 본다.

- “○○이 궁금한 이유는 무엇이니?”

- “어떤 점이 너의 생각과 달랐니?”

② 의문표현하기

- 개인 활동지를 사용하여 활동지에 자신의 질문과 이유를 글로 적거나 그림을 그리게 한다.

③ 자기 의견에 대한 이유 말하기

- 질문이 완성되면 자신의 궁금한 점과 이유를 발표해 본다.
- 나와 친구의 생각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본다.
- 반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선택하여 질문에 대한 이유를 말해본다.

(3) 활동평가

- 동화 내용에 관련된 자신의 궁금증을 바르게 표현했는지,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들었는지, 궁금증이 활동이 재미있었는지 등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 차시에 할 활동을 유아에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한다.

【2차시】

● 토론놀이: 나눔이란 무엇일까?

- 주제: 나눔이란 무엇일까?
- 일시: 2021년 9월 1일(수)
- 불전설화 선정동화: 두 형제 이야기(고기떼의 전생)
- 활동시간: 20분~30분
- 활동유형: 대, 소그룹
- 철학적 탐구활동 목표: 다각적인 탐구과정을 통해 나눔의 의미 이해하기
- 철학적 탐구활동 방법: 토론놀이
- 활동목표
 - ‘나눔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토론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 토론활동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다.
- 활동자료

- 동화자료, 질문 활동지, 연필, 지우개, 색연필, 크레파스, 칠판, 토론 규칙판
- 활동시 유의점
 - 유아가 토론과정에서 ‘정답’에 도달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않도록 한다.
 - 교사의 견해를 주장하기보다는 유아들 스스로 생각하도록 고무시킨다.

● 활동 과정 및 내용

(1) 도입: 불교동화 탐색

- ‘두 형제 이야기’에 대한 줄거리를 회상한다.
- 지난 궁금놀이 시간에 나온 친구들의 궁금해했던 질문에 대하여 알아본다.
 -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의 내용이 기억날까요?
 -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질문을 했었나요?
 - 우리가 가장 궁금하다고 뽑은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2) 철학적 탐구활동 전개

① 토론 질문 살펴보기

- 나눔이란 무엇일까?
 - ‘나눔’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본다.

② 철학적 토론하기

- 나눔은 언제 하는 것일까?
- 나눔은 누구에게 할까?
- 나눔은 왜 하는 걸까?
- 칭찬받기 위해 나누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 나눔은 다 좋은 것일까?
- 나누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걸까?
- 나눔이란 무엇일까?

③ 토론 평가하기

-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 ‘나눔’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나와 어떤 점이 다른지 발표한다.

(3) 활동평가

- 토론할 때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는지,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이야기했는지, 토론 놀이가 즐거웠는지 등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
- 다음 차시에 할 활동을 유아들에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한다.

【3차시】

● 육색모자 토의활동: 나눔이란 무엇일까?

- 주제: 나눔이란 무엇일까?
- 일시: 2021년 9월 3일(금)
- 불전설화선정동화: 두 형제 이야기(고기떼의 전생)
- 활동시간: 20분~30분
- 활동유형: 대, 소그룹
- 철학적 탐구활동 목표: 육색모자 토의활동으로 ‘나눔’의 의미 이해하기
- 창의적사고활동방법: 육색모자 토의활동
- 활동목표
 - 유아가 육색모자 토의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활동자료: 동화자료, 발표 마이크, 육색모자(흰색, 빨강, 검정, 노랑, 초록, 파랑)
- 활동시 유의점
 - 교사의 견해를 주장하기보다는 유아 스스로 생각하도록 고무시킨다.

● 활동과정 및 내용

(1) 도입

- 지난 토론놀이 시간에 친구들이 발표한 토론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 우리는 ‘두 형제 이야기’ 동화를 듣고 어떤 주제로 토론을 했었나요?
- 가장 기억에 남는 토론내용은 무엇인가요?
- 육색모자 사고기법을 활용한 토의 활동에 대하여 알아본다.

(2) 활동 전개

① 육색모자 토의활동 소개하기

<사례 1>

- 발표할 유아 6명을 선정한다.
- 쓰고 싶은 모자를 고른 후 순서대로 앉는다.
- 교사의 질문에 모자의 순서대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
- 만약 자신이 발표할 차례이지만 생각이 안 나면 자신의 모자를 다른 친구에게 씌워주고 대답할 수 있다.

<사례 2>

- 교사가 질문을 한다.
- 유아가 앞으로 나와 해당 모자를 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 발표할 친구가 더 있으면, 모자를 받아쓰고 자신의 생각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

② 육색모자 토의활동 전개

- 선생님이 ‘하얀 모자’를 쓴 친구에게 질문할게요?
- 동생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하얀모자: 동생이 혼자만 가지려고 했어요. 욕심쟁이처럼 혼자 가져요.
- 선생님이 ‘빨간 모자’를 쓴 친구에게 질문할게요?

- 동생은 아버지가 남긴 많은 돈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빨간모자: 기분이 좋았어요. 신나요.
- 선생님이 ‘검정 모자’를 쓴 친구에게 질문할게요?
- 동생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돈을 형님과 나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 검정모자: 돈이 작아져서 싫어요.
- 선생님이 ‘노란 모자’를 쓴 친구에게 질문할게요?
- 아버지가 주신 돈을 형님과 나누면 작아질 수 있지만 돈이 꼭 많아야 좋은 걸까요? 돈이 적으면 안 되는 걸까요?
 - 노란모자: 돈이 작아도 좋아요. 돈이 없어도 형님과 재밌게 놀 수 있어요.
- 선생님이 ‘초록 모자’를 쓴 친구에게 질문할게요?
- 동생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돈(유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은 무엇 일까요?
 - 초록모자: 형님과 나눠서 가져요. 욕심부리지 않고 동생과 엄마에게도 나눠줘요.
- 선생님이 ‘파란 모자’를 쓴 친구에게 질문할게요?
- 동생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파란모자: 아버지의 말대로 형님과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어야 해요. 그래야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③ 활동평가

- 육색모자 토의활동에 참여한 느낌은 어떠했나요?
 - 육색모자 토의활동은 즐거웠는지 스스로 평가한다.
 - 발표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이야기했는지 스스로 평가한다.
- 다음 차시에 할 활동을 유아들에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한다.

2.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대한 동질성 검증

본 연구의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질성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t-검증을 수행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유아의 공감능력 동질성 검증

영역	실험집단(N=20)		통제집단(N=20)		t
	M	SD	M	SD	
소통적 공감	18.85	1.93	18.80	2.38	.942
사회적 공감	18.20	6.20	19.60	4.79	.429
정서적 공감	19.50	4.01	19.70	3.34	.865
인지적 공감	13.15	1.84	12.75	1.94	.508
공감능력 전체	69.70	9.66	70.85	9.76	.710

p>.05

<표 9>에서와 같이 유아 공감능력의 전체 점수($t=.710,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인 소통적 공감($t=.942, p>.05$), 사회적 공감($t=.429, p>.05$), 정서적 공감($t=.865, p>.05$), 그리고 인지적 공감($t=.508, p>.05$)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은 동질적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나. 유아의 공감능력에 대한 집단 간 비교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자 사후검사 결과에 대하여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는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유아의 공감능력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

영역	집단	유아수(N)	평균(M)	표준편차(SD)	t
소통적 공감	실험집단	20	22.90	1.83	.000***
	통제집단	20	18.95	2.98	
사회적 공감	실험집단	20	23.70	1.78	.927
	통제집단	20	23.75	1.65	
정서적 공감	실험집단	20	21.60	3.35	.201
	통제집단	20	20.10	3.92	
인지적 공감	실험집단	20	14.20	0.89	.004**
	통제집단	20	12.85	1.79	
공감능력 전체	실험집단	20	82.40	5.71	.003**
	통제집단	20	75.65	7.46	

p<.01, *p<.001

<표 10>에서와 같이 유아 공감능력의 전체 점수($t=.003,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인 소통적 공감($t=.000, p<.001$)과 인지적 공감($t=.004,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공감($t=.927, p>.05$)과 정서적 공감($t=.201, p>.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을 구성하고 유아의 공

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 구성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기반으로 활동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철학적 탐구활동은 조선희(2004)가 제안한 철학놀이 7개(탐정놀이, 궁금놀이, 상상놀이, 배려놀이, 토론놀이, 구성놀이, 표현놀이)와 호기심 유발과정, 다각적 탐구과정, 의미 구성과정, 의미 확장과정을 기초로 1, 2차시에 적용하였다. 또한 3차시에는 불교동화의 내용을 토대로 육색모자 사고기법(DeBono, 1985)을 활용하여 폭넓은 창의적 사고를 통해 다른 관점에서 공감하고 바라보는 토의활동이 전개되었다.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에서 ‘궁금놀이’는 동화 내용에 대해 놀라움이나 궁금증을 가져 보는 활동이며, ‘탐정놀이’는 유아의 추론능력을 기르는 데 있으며, ‘상상놀이’는 자신의 입장에서 상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려놀이’를 통해서 배려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였고, ‘토론놀이’에서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탐구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구성놀이’에서는 구성물을 만들어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표현놀이’에서는 동극이나 조각활동으로 표상해 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는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중심의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활동일 뿐 아니라 조선희(2004)가 제안한 철학놀이 활동이 육바라밀을 기반으로 유아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활동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공감능력은 전체적으로 볼 때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능력의 하위 영역인 ‘사회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통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선영(2016)

의 연구에서 공감에 기반한 토론수업이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이해력, 자기조절력, 또래 상호작용 행동,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또한 김견미(2014)의 연구에서는 유아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이야기 속의 주인공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뿐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인성적으로 풍부해졌다는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은 유아의 공감능력 전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하위요인에서는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이 소통적 공감능력과 인지적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사회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진행된 교사의 놀이 지원과 유아의 놀이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해 본 연구의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이나 통제집단의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한 놀이중심의 교육활동이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 증진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6주(18회기)의 단기간에 걸쳐 진행된 실험처치의 결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불교유치원과 만 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철학교육은 유아교사의 철학에 대한 관심과 철학적 사고능력이 모델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유아 철학교육은 현장의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유아교사의 철학적 사고능력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사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이 G지역의 만 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

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여러 연령층과 성별을 변인으로 한 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유아의 철학적 토론 활동과 철학적 사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확대하여 적용하거나 발달 변인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고현숙(2007), 「아동철학교육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듀이 철학과 립만의 LAPC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11),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창의성교육 프로그램』,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2017.7.7.)>, 「교육정보,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육색 사고 모자 활동」, 교육부 공식 블로그(2021.10. 인출)
- 구민호(2009), 「육바라미를 중심으로 한 불교윤리의 교육철학적 조명」,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대원(2008), 『불교 유치원 교사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과정』, 양서원.
- 권대원·김세인(2014), 『깨달음을 얻은 아버지』, 양서원.
- 권대원·김세인(2014), 『욕심 많은 해오라기』, 양서원.
- 권대원·김세인(2014), 『지혜로운 원숭이 왕과 호수귀신』, 양서원.
- 권은주(2015), 『불교 유치원 교사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과정』, 양서원.
- 김견미(2014), 「공감능력에 기초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순(2005), 「육색 사고 모자 활동을 통한 ‘다양하게 생각하기’에 관한 반성적 실천 연구」, 경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숙·유연옥(2007), 「철학적 탐구 공동체 활동이 유아의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327-347.
- 박철홍 외 6인(2002), 『신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법정스님(1994), 「맑고 향기롭게」 회주 법정스님 강연요지, 불교신문(1994.04.04.), 1호(2021.10. 인출).
- 안현정(2016), 「육바라미기반 철학활동이 유아의 메타인지 및 자기인식과 확산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2016), 「공감에 기반한 유아 토론 수업모형 개발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2012), 「플라톤『대화편』과 만 5세 유아들의 <철학적 탐구공동체 활동>의 토론과정 비교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영숙(2021), 「유아용 공감능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광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윤정(2007), 「어린이 철학교육의 가능성과 방법론 고찰」, 『동서철학연구』 제 44호, 51-75. 「유아철학 방법론 고찰-“유아철학놀이”를 중심으로」, 『대동철학』 제 40집.
- 임윤정(2009), 「어린이 철학교육의 방법론을 교과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가?」, 『새한철학회』 철학논총(55), 323-337.
- 정상섭(2006), 「공감적 화법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선희(2004), 『유아 철학놀이』, 창지사.
- 조선희(2011), 「철학적 토론활동에 나타난 유아의 추론수행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제15권 제 2호, 369-392.
- 홍승분(2007), 「유아 철학놀이가 유아의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eBono, E. (1985), *Six thinking hats*. London: Penguin Book.
- Fisher, M. (2008), *Organisms and teleology in Kant's natural philosophy*. Emory University.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 Girolametto, L., Weitzman, E., & Greenberg, J. (2004), The effects of verbal support strategies on small-group peer interactions. *Language, Speech, &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5(3), 254-268.
- Hazen, N. L., & Black, B. (1989), Preschool peer communication skills. The role of social status and interaction context. *Child Development*, 60(4), 867-876.
- Lipman, M. (2005), 『고차적 사고력 교육』, 박진환, 김혜숙 역, 서울: 인간사랑.(2003년 원저 발간).
- Martens, E. (1999), *Philosophieren mit Kindern*. 박승익(역)(2000), 『어린이와 함께 철학하기』.
- Mattews, G. B. (1980), *Philosophy and Young Child*. 서울교육대학 철학연구 동문회 (편역)(1987).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 서울: 서광사.

Wittgenstein, L. (1921),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Philosophical investigation.

이영철(역) (1991), 『논리-철학논고』, 서울: 천지.

■ Abstract

The Effect of Philosophical Inquiry Activity based on Six-Paramitas on Young Children's Empathy

Hyun-Jeoung, Ahn(Ven, 명진)

This study researched the effect of philosophical inquiry activity based on Six-Paramitas on young children's empathy. 40 (20 from experimental group and 20 from comparison group) 5 years-old young children from two kindergarten in G city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18-times of philosophical inquiry activities that utilized Buddhist folktales based on 6 main topics of Six-Paramitas were conducted for the experimental group. Topic based integrated education activities that were based on Nuri-curriculum were conducted based on weekly education planning. The collected data was validated by independent t-test using SPSS/PC (win 28.0). As a result, all elements of empathy and sub-elements of communicative empathy and cognitive empathy 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s than the one in the comparison group. This indicates that philosophical inquiry activities based on Six-Paramitas affect young children's empathy in a positive way. Also, it indicates that philosophical inquiry activities based on Six-Paramitas that utilized Buddhist folktales are an applicable teaching-learning method.

Keywords ● Six-Paramitas, philosophical inquiry activity, young children's

empathy, communicative empathy, cognitive empathy

▮ 논문투고일 : 2021. 12. 3 ▮ 심사완료일 : 2021. 12. 15 ▮ 게재확정일 : 2021. 12. 20